

전남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유명무실

진입 방지 표지판 뚫고 차량들 줄지어 들어와 전체 구간에 불법 주정차 즐비 무법지대 방불



전남대 후문 대학로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비협조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대학로 곳곳에 차 없는 거리 표지판과 함께 진입을 방지하는 간판들을 뚫고 차량이 들어오면서 일대가 무법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18일 북구청에 따르면 주민들 보행권을 확보하고 청년문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로 상권지역 2개 구간(430m)을 선정, 지난해 5월부터 ‘전남대 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차 없는 거리엔 버젓이 차량들이 통행하고, 불법으로 주·정차까지 이뤄져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18일 오후 4시 전남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방지 안내 표지판 5개 설치돼 있지만 이동식 안내 표지판으로는 차량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말이 좋아 차 없는 거리이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구청이나 경찰에서 단속은 한다지만 밤이면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와 일반 차량들, 그리고 보행자들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다”고 항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진입 방지 이동식 표지판 뒤에는 차량이 딱 하니 주차돼 있고,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430m구간에도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했다.

여기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진입해오는데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한데 뒤섞이면서 극심한 교통체증까지 발생했다.

한 모씨(21·여)는 “보행자들을 위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것은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면서 “일주일에 여러번 이상 이곳을 찾는데 매번 차량들로 북적였는데 행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전남대 후문 대학로에 버젓이 차량들이 진입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었다.

‘차 없는 거리’에 차를 몰고 온 운모씨(31)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긴 했지만 표지판을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여기 저기에 차량들이 주·정차 돼있어 차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교통행정팀에서 주 1~2회 정도를 주기로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신고는 교통지도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단속시간이고 그 외 시간대에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지역이다”며 “대학로 안이나 복개도 못한 것 같다”며 “여기 저기에 차량들이 주·정차 돼있어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시민들이 간혹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은 교통행정팀에서 주 1~2회 정도를 주기로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신고는 교통지도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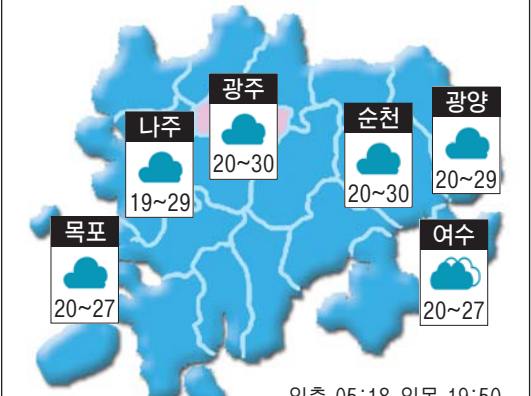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북구청은 교통행정팀에서 주 1~2회 정도를 주기로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신고는 교통지도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등으로 주 1~2회 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최종 완료된 북구 ‘차 없는 거리’는 ‘전남대 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5억, 시비 5억 등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버스킹 스팟, 문화조형물을 설치하고 대학로 주변 상가지구와 주거지역, 도로 등에 차량속도 저감시설을 구축한 사업이다.

김충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8~28	흑산도	18~24
담양	20~29	구례	19~29
화순	19~28	곡성	18~29
영광	19~27	완도	20~28
함평	20~28	강진	20~29
무안	19~27	장흥	19~29
영암	19~29	해남	19~28
진도	20~27	고흥	19~28
신안	20~27	보성	18~27

강진 실종 여고생 나흘째 수색

경찰, 사망한 부친 친구 행정 추적

강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의 행적이 나흘째 묘연하다.

여고생 A양(16·고1)이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친구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실종 당일 A양 가족이 집으로 찾아가자 도망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행방불명 상태인 A양을 찾기 위해 인력 570여명, 열 감지 장비 탑재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집을 나선 뒤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A양은 실종 전 친구들에게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해 만나서 해남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남겼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버지 친구이자 A양 가족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51)의 소재를 조사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17분께 강진의 한 철도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에 A양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오간 내용은 없었으나 그가 A양을 만났을 것으로 보고 행정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양이 집에서 나선 시간대에 600m가량 떨어진 지점 CCTV에 B씨의 차량이 찍혔고 이 차량의 동선과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동선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당일 밤 친구들에게 A양의 소재를 수소문한 가족이 B씨의 집에 찾아가자 집 안에 있던 B씨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CCTV 영상도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집과 20여km가량 떨어진 도암면에서 잡힌 점 등을 토대로 이 일대를 수색 중이다.

‘뇌물’ 한전 임직원 무더기 덮치 “12·12 쿠데타 당시 해·공군, 전두환에 반기”

상임이사 등 9명·업자 3명 등 13명 기소

5·18기록관, 미 정부 기밀문서 분석 결과 발표

경찰이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전기공사 사업비를 몰아 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과 간부 직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한전 본사 상임이사 A씨(60) 등 한전 본사 간부 2명과 한전 지역본부 간부 직원 B씨(52·2급)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로부터 수백 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한전 본부 본부장 C씨(59·1급) 등 한전 지역 간부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전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D씨(56)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 7,000여만원을 받고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뇌물 총액은 5억 3,000만원에 달한다.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광민 기자

12·12 군사쿠데타당시 해군과 공군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에 반기를 든 정황이 미국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5·18민중추진위원회는 조만간 공개 보고회를 열어 12·12와 5·18 당시 미국 정부의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5·18기록관은 미국 언론인 팀 서록(67)이 지난해 기증한 3,530쪽 분량 59개 기밀문서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23일 오후 3시 광주 금남로 국제교류센터에서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지만, 주한미군대사관과 미국 정부가 주고받은 첩보 자료 일부에 12·12 당시 우리 군 내부 동향이 담겨있다고 5·18기록관은 설명했다.

5·18기록관은 12·12 당시 해·공군 지휘부가 쿠데타 세력에 반기를 들었으며 자칫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 측이 입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자료를 기증한 팀 서록은 5·18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 ‘체로키 파일’

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에 머물며 미국 정부 기밀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건 일자와 시간대별 분류·정리, 문서 해제 작업을 한 뒤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팀 서록은 5·18 당시 미국 정부가 전두환 신군부 내부 상황, 시민군의 동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광주항쟁이 한국과 자국 안보 이익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대규모 연회장에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 등에서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피앤제이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